

## 본회, 양돈산업 위기대처를 위한 연수 및 대책회의 개최

### 번식모돈 10%감축 등 4개항 결의

취재: 곽삼섭 기자

본회는 지난 6월 1일·2일 양일간 서울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전국 임원·지부장 및 지부운영위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양돈산업 위기대처를 위한 연수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제9차 연수회를 겸한 이날 모임은 개강식에 이어, ▲특별강의 ▲모범지부 사례발표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전국임원·지부장 및 지부운영위원 연석회의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수회 개강식에서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정부의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4·8조치는 농민에 대한 사형선고가 아닐 수 없다고 견제하고,「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양돈업에 우리 생산자들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자」고 역설했다.

개강식에 앞서 전동용 회장은 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에 다년간 근무하면서 본회 및 양돈산업발전에 공이 많은 이수현 유통계장(축정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본회 검정소의 '88년도 검정성적 결과 최우수농장으로 선정된 태화축산(대표: 이시길)과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우석종돈(대표: 우봉권)에 각각 상패를 전달했다.

또한, 전동용 회장은 새로 도협의 회장과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명복씨(경기도)·김태환씨(전라남도)·박영식씨(전라북도)에게 도협의회장 인준서, 강복균씨(김해지부)·박만중씨(진주지부)·장순원씨(연기지부)에게 각각 지부장 인준서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양돈

인의 자세와 나아갈 길(본회 전동용 회장) ▲생산자단체의 기능과 역할(농축수산유통정보 황민영 편집국장) ▲'89년 하반기 양돈경기 전망과 정부의 대응방안(농림수산부 이인형 중소가축과장) ▲양돈산업의 현황과 불황극복 전략(본회 노영한 전무이사) 등의 강의가 있었다.

전동용 회장은 강의를 통해「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1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정책의도는 좋으나, 실제 축산업에는 0.3%인 500억 정도밖에 투자되지 않는 정책적인 모순이 드러났다」고 밝히고,「성인병 환

자와 같은 양돈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기보다 양돈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동용 회장은 또, 4·8수입개방 조치로 양돈업계는 새로운 난관과 벽이 눈앞에 가로 놓여 있다"고 말하고, 「양돈업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제도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전양돈인들은 같은 배를 탔다는 공동운명체 의식을 갖고 대외정책로 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민영 편집국장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상실하게 된 데에는 미국 정부의 작태가 괴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대응자세를 취하지 못한 저의에 강한 불만이 앞선다"고 말하고, 「양돈산업의 위기대처를 위해 정책 발상자의 전환을 바라기에 앞서 생산자 단체인 협회를 통해 장기



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형 중소가축과장은 「계절적으로 7~8월은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이고, 또 경제성장 둔화로 금년 하반기에는 돼지가격이 전년도 동기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히고, 「돼지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전체 모돈수가 77만1천마리를 상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두수 늘리는 것을 억제하고 불량 모돈의 조기도태 등 감축경영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부활동이 활발했고 타 지부의 선두역할을 해 온 ▲인천지부 ▲당진지부 ▲울산울주지부의 지부 운영 사례발표가 있었다.

지부운영 사례발표에서 장무성 인천지부 상무는 「돼지 계통출하 및 새마을금고 운영사례」, 최은범 당진지부장은 「지부자체 종돈장 및 인공 수정사업 운영사례」, 성정표 울산울주지부장은 「지부 주간속보 발행 및 사료공동구매, 지부소속 6개 분과위 활동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녁 식사후 6개 분임조로 편성, 각조별 조장을 선출한 뒤 최근 양돈업의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업의 대응방안<제1조> ▲자조금제도란 무엇이며, 자조금제도를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것인가(제2조) ▲왜 협회가 필요하며, 양돈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제3조) ▲돈육소비촉진을 위한 방안과 돈육수출확대 방안은 <제4조> ▲생산원가 절감방안과 사육두수 감축에 대한 방안(제5조) ▲우리나라 양돈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방안은 <제6조> 등을 집중 토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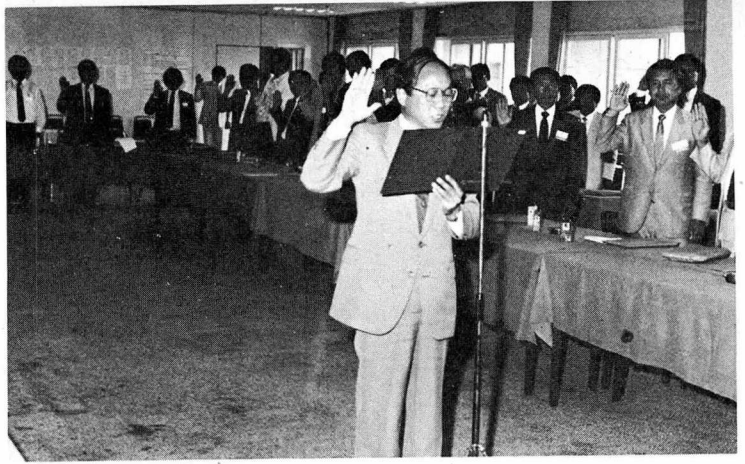
분임토의에서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업의 피해를 극소화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가격안정법 제정, 수입부과금제도 실시, 비판세 장벽강화,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제도개선이 선행되도록 중앙회, 도협의회, 각 지부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대외활동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제2조 : 자조금제도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시·군 단위별로 총사육두수의 70% (약3백40만두)에 해당하는 동의서 취합을 목표로 지부장·운영위원·회원 등에 동의서 취합을 할당하고, 또 도별 추진위원을 선정하여 취합을 강화해야 한다.

▲제3조 : 협회는 개인 및 소수원이 해결하기 불가능한 정책적인 문제 등을 단체의 힘을 발휘하여 공동대처하고, 전양돈인들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개인의 노력은 전체 양돈인의 발전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4조 : 돈육소비촉진은 항구적인 요리학교를 설립해 다양한 요



리를 개발하여 마스크를 통해 돼지고기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돈육수출확대 방안은 공산품과 동일조건으로 수출장려금을 지원하여 생산단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5조 : 생산원가 절감은 사료비 절감·종돈관리·육질개선·인력관리·사육환경 및 질병관리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자율적 생산조절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 불량모돈 10%를 감축해야 한다.

▲제6조 :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투자 및 금융지원이 절실하고, 또 선진국과 같이 축산업원자재(사료·축산기계·동물약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

한편, 6월 2일 전동용 회장 주재로 진행된 양돈산업 위기대처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문제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방안 ▲모돈감축 문제 ▲돈육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협의했다.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예시발표로 인해 양돈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 협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각도협의회장과 지부장을 중심으로한 「수입개방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전략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현재 모돈수 77만 1천두에서 적정사육 모돈수 64만두를 감축하면 무려 13만1천여두를 감축해야 된다고 밝히고, 협회는 정부와 행정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비육돈 출하시 일정율의 어미돼지를 출하토록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지키지 않는 출하자에 대해서는 도축제한을 강행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임토의 결과를 내용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승현 서산지부장의 선창으로 「최근 돼지가격 하락으로 장기화 기미가 예상되는 양돈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양돈인들이 모돈감축으로 적정 사육규모 유지에 앞장설 것과 돼지고기값이 회복될 때까지 수입쇠고기 저가방출판매를 중지 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전국양돈인 일동으로 채택된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 의 문

우리는 수입쇠고기 대량방출과 4월 8일 농축산물 수입개방예시발표로 인한 계속적인 돈가하락과 향후 심각한 양돈경기 불황예상 등 희망과 의욕을 잃어버린 양돈업의 위기적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생업을 사수하고 양돈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 양돈인들은 새로운 각오로써 다음 사항을 강력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최근 돈가하락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번식돈의 과감한(10%)감축으로 적정사육규모 유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정부의 수입쇠고기 무제한 저가방출 판매는 양돈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돼지고기값이 회복될 때까지 수입쇠고기의 저가방출판매 중지를 정부에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국내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료·동물약품·축산기자재 등 생산원자재의 관세·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부·입법부 및 관계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이해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돈육소비홍보 및 연구조사사업 등을 위한 자조금제도의 참뜻을 이해하고, 6월말까지 동의서를 취합 완료하여 자조금제도 조기입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989년 6월 2일

전국양돈인 일동

### 돈육비방 (豚肉秘方)

## 돼지고기, 이런곳에 좋습니다

●식사할 때 땀이 많이 나면

이것은 비위(脾胃)가 나쁜 탓이므로 날돼지 간(肝) 1개를 얇게 썰어 새 기와에 엮고 불로 달구어 말린다.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밥물에 개어 머귀열매(梧桐子) 크기만한 환약을 만들어 이것을 매일 세차례 식전마다 50~70알씩 따끈한 물로 복용하면 된다. 간(肝) 1개로 낫지 않을 때에는 다시 1개를 더 만들어 복용하면 된다.

이 처방은 지한(止汗) 뿐만 아니라 빈혈(貧血)이나 멀미도 치료하며 오랫동안 복용하면 눈이 맑아진다.

●오래된 기침이 낫지 않을때, 또는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는 증세

돼지 콩팥 1쌍을 얇게 썰어 후추알 47개를 넣고 물 5사발로 조려서 2사발이 되면 된다. 이것을 매일 한컵씩 5회정도 수시로 마시면 좋다.

또 한가지 방법은 돼지 콩팥 1쌍을 잘게 썰어 건강(乾薑) 3냥중(약119g)과 물 7사발로 조려 2사발이 되면 3등분하고 이것을 하루 세차례 식전마다 복용하면 된다. 첫번 복용할 때에는 땀은 한 차례 내야 더욱 좋다.